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4년 2월 18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마태복음 4장 1-4절

설교제목 :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광야시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야 합니까? 광야 시험은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되심을 테스트받는 사건입니다.(참고 마2:3)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되심, 즉 메시아되심을 입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삶을 광야로 표현합니다. 예수 안에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분명한 확신의 근거는 그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딤후4:7) 이 땅을 살면서 전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자기 확신에 근거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바울과 같은 확신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준비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딤후4:8) 바울의 고백대로, 선한 싸움과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 땅에 성화적 삶이 없이는 절대로 영화의 삶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받으신 광야 시험은 창조 때에 첫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셨다는 말씀이 이해됩니다.(1절) ‘**이끌리어**’의 원형이 ‘아나고’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위로’라는 ‘아나’와 ‘인도하다’는 뜻을 가진 ‘아고’의 합성된 동사로, 낮은 곳에서 보다 높은 곳으로 인도하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다 다른 곳이 지형적으로 높은 곳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태의 매우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고대근동에서 성전은 대개 높은 산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써의 에덴 역시 높은 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겔28:13-14) 따라서 ‘**이끌리어**’, 즉 ‘**높은 곳으로 인도하다**’는 표현은 성령이 인도하신 곳이 마치 옛 아담이 시험받았던 에덴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 즉 광야에서 에덴동산의 시험과 동일한 시험을 받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시험이자 유혹입니다. 사탄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 가지로 유혹합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시험은 사십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주리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이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2-3절) 사십일의 신학적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과 시험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와 연관됩니다. 신앙적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삶은 고통과 연단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금식은 말 그대로 먹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먹지 못함으로 인해 굶주림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금식 후 주리신지라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결핍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핍의 연속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결핍을 경험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어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의 요구가 과연 악한 요소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은 이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시므로 자신의 메시아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됩니까? 오히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다면 메시아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것이라 하시면 거부하십니다.(4절) **‘떡으로만’**이란 의미는 **‘오직 떡 하나에 의존하여서만’**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일단 인정하는 것입니다. 떡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욕적 욕구를 대변하는 제유법입니다. 인간에게는 욕적 욕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니다. 인간의 욕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라는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바로 에덴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유혹이었습니다. 네이레이라는 학자는 첫 번째 시험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시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가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창2:16-17)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라는 말씀은 모든 동산의 열매는 인간의 욕구에 따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욕망과 욕구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단지 인간의 먹고 싶은 욕망을 채웠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사실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본질은 무엇입니까?(창3:5)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바로 옛 아담의 시험과 같은 선악과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8:3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의 선악과의 유혹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구를 좌악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욕구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우리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나의 욕구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이 우선된다면, 선악과를 범하는 죄와 같은 것이며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범죄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의 유혹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우리의 욕망의 부딪히는 현실을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선택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욕구를 마음껏 누리시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존재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사탄의 시험이 갖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봅시다.
- 3)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아담의 선악과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오늘날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던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무엇으로 무장해야 하는지 구역원들과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